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권혁용, 차유미 전도사

정주애 은퇴전도사

김원재 목사

오전 9시
오전 11시

교회소식

1월의기도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파송의말씀

축 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인도자

주일예배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전능왕 오셔서(찬 10)

여호와 우리 주여

주만 바라볼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찬 214장 4절)

사도행전 27:1-12

주님

“위태로운 항해 속에서도”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찬 432)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월의 공동기도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가족기도제목 카드**가 비치되었습니다. 모두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교역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2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 **결산공동의회**로 모입니다
5. 2022년 **큐티책 연간 정기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 \$70 / 6개월 : \$35 (문의 - 박순정)
6. **현장새벽기도회**는 토요일에만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7.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당분간 예배당 사용에 조심을 기하라는 미국 교회의 요청이 있어서 주일예배 이후에 일체의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기도,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오늘 2022년 가족기도제목 카드가 비치되었습니다. 한울림 교우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비공개로 표시하면, 제가 혼자 기도하게 됩니다. 공개로 표시하면, 중보기도팀과 제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기도 제목은 마감 날짜를 표시하시면 그날이 되면 제가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가정당한 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요일별로 나누어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알면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트리지 말고 모든 교우들이 가정마다 한 장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한울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되짚어 보는 논의들이 한창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현장예배와 영상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코비드시대라고 일컫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비대면 예배인 영상예배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예배에 올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상예배가 현장예배를 대체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울림교회도 연초에 잠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예배에 오는 사람들보다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부이지만, 현장보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명한 목사님들이 현장예배와 영상예배가 같다고 말하거나, 앞으로는 영상예배가 현장예배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초기에는 진지하게 예배드렸지만, 갈수록 느슨해지는 모습을 스스로 보인다고 자성합니다.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10% 이내의 사람들은 영상이든 현장이든 차이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흐트러진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관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습관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습관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히 모든 분들이 현장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